

태국의 100% 콘돔사용 프로그램

고위험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으로 큰 성과

인류최대의 재앙이라는 에이즈의 발견 이후 에이즈는 무서운 속도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에이즈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성공한 해외 에이즈 예방사업을 선별하여 국내 예방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연재기획하고자 한다.



이상은
본회 사업과장

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1984년이다. 그 이후로 에이즈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태국의 심각한 보건문제가 되었다.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를 보면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성간의 성접촉이 주경로를 차지하여 태국정부는 성관계에서의 에이즈예방을 주요 전략목표로 세웠다.

태국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콘돔사용 크게 신장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교육 사업이 진행되었고 아울러 태국정부에서는 고위험 집단에서의 콘돔사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콘돔은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과 성병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콘돔 사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80년대 중반이후 에이즈가 발병하면서 HIV 전파예방을 위해 콘돔사용이 장려되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1989년부터 태국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면서 100% 콘돔사용 운동을 시작했고, 1992년에는 콘돔사용률이 90% 까지 증가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성병 발생율은 1,000명당 6.5명(1989년)에서 1,000명

당 0.5명(1996년)으로 극적으로 감소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콘돔보급 정책이 크게 기여를 했는데 태국정부는 90년에 1,510만개 무상 보급했던 콘돔을 93년에는 7,150만개 보급하였다. 현재는 1억 2천만개의 콘돔이 매년 소비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50%는 정부에서 보급하고 나머지 50%는 기업에서 보급한다고 한다.

콘돔사용 촉진을 위한 태국정부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첫째, 콘돔사용 장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과 올바른 콘돔사용 교육
- 둘째, 정부와 관련 민간단체의 무상 콘돔 보급과 제약회사를 통한 보급 활성화
- 셋째, 100% 콘돔사용 프로그램 실시

콘돔없는 성매매 원천봉쇄한 태국정부의 정책이 성공비결

100% 콘돔사용 프로그램은 1989년 방콕 남부의 한 지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매춘여성들과 고객들의 콘돔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성접촉으로 인한 HIV 전파를 예방하고 나아가서 일반국민으로의 전파를 예방하는데 있다.

100% 콘돔 프로그램 성공의 주요 열쇠는



윤락업소 포주들의 협력을 얻는데 있다. 이들 포주들이 성매매 종사자들로 하여금 콘돔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쉽게 콘돔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 성공의 관건이었다.

태국 정부에서는 고객들이 콘돔사용을 거부하면 손님을 거부하거나 돈을 환불해주도록 포주들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모든 윤락업소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한 업소에서 콘돔사용을 거부해서 거절당한 사람이 다른 업소에서 받아들여지면 포주들간에 불화가 생기고 이윤을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0% 콘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포주들간의 연대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포주들은 콘돔사용을 통한 에이즈 예방이 장기적으로는 윤락업소의 이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를 하였고 만약 비협조적인 업소에는 일시 영업정지나 무기한 영업정지 같은 벌금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같이 인식하게 만들었다.

프로그램의 성공과 함께 성병 발생률은 점차 감소하였고 복지부는 점차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1991년 국가에이즈위원회에서는 마침내 전국적인 100% 콘돔사용 운동을 결의하였다. 1993년에는 윤락업소에서 콘돔사용률이 95%까지 올라가는 등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지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HIV감염 케이

태국정부는 윤락업소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콘돔사용 정책으로 에이즈감염 건수를 대폭 감소시켰다. 포괄적인 에이즈예방사업이 아닌 에이즈의 주요감염경로인 윤락업소를 집중적으로 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100%에 가까운 콘돔사용률을 달성시켰다.

스가 200만건 이상 줄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콘돔에 대한 자연스런 수용자세, 쉬운 구매 등 또 다른 성공비결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외에도 100% 콘돔사용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있었다.

- ▶태국사회에서 콘돔은 HIV 예방 수단으로 거부감 없이 수용되었다.
- ▶콘돔의 태국어 명칭이 있다. 건강 고무 자루(Health Rubber Sack)
- ▶적절한 가격에 어디서나 쉽게 콘돔을 구입할 수 있다.
- ▶태국 내 콘돔제조업체가 여럿 있었다.
- ▶전국 지역방역센터와 보건소를 통한 콘돔 조달망이 잘 발달해 있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태국의 100% 콘돔사용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에이즈예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프로그램의 목적을 윤락업소에서의 콘돔사용으로 제한하고, 도덕 순결운동이나 매춘단속 등을 통한 예방은 프로그램의 목적에서 배제시킨 점 또한 성공의 한 요인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내년도 국가 에이즈예방사업 예산을 인상하면서 콘돔보급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어 태국의 예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